

국제갤러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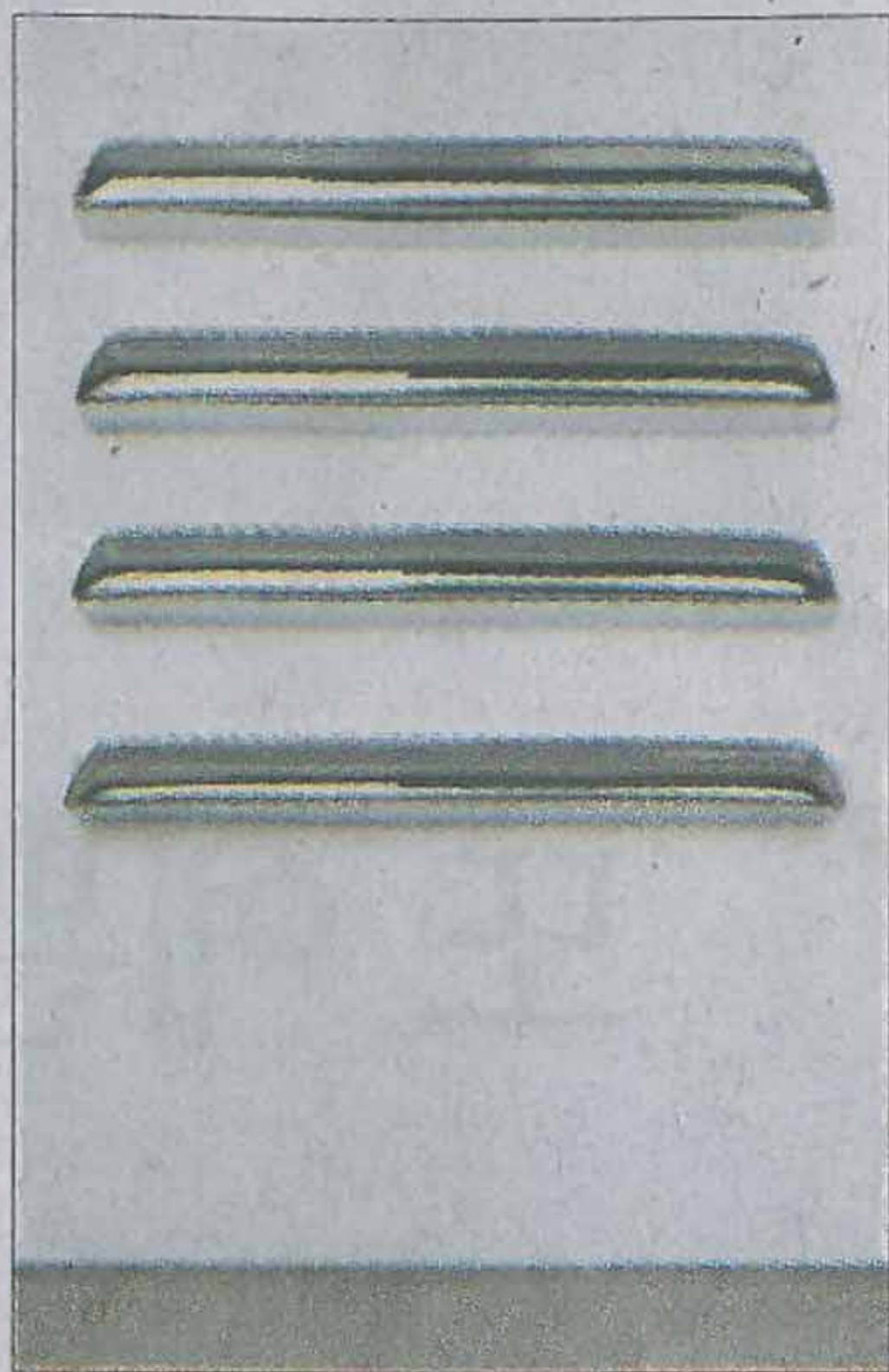
60~70년대 미국 현대미술의 재해석

에론 영 한국서 2번째 개인전 회화·조각·영상 등 선보여

미국작가 에론 영(41)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적 유산을 예술가가 어떻게 재발견,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지 잘 보여준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두번째 국내 개인전에서 그는 자신의 대표 연작인 '번 아웃', 회화와 조각인 '스포일러', 영상작품 '저항' 등을 선보이고 있다. '번 아웃'은 황동판 위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로 오토바이를 몰아 타이어와 황동판이 서로 타면서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작품이다. 사각 화면에 담긴 타이어 자국은 역동적인 붓질의 추상화 같다. '스포일러'는 자동차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장치로, 작가는 1960~1970년대 유명 스포츠카의 스포일러를 구해 매끈하게 다듬어 벽에 걸었다. 미니멀아트 조각으로 유명한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 연상된다. '저항'이란 이름의 영상은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1960~1970년대 미국 현대미술을 휩쓴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행위예술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 자신도 과거 미술사와의 연결을 인정하면서 "피카소도 '유



에론 영의 '무제 2013', 유리섬유 위에 크롬, 119.4× 154.9× 14cm

능한 미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흠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오토바이, 자동차 등은 미국 남성들이 특히 집착하는 것으로 마초적 문화나 탐욕,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교묘하게 비판하는 셈이다. 미술평론가 유진상씨(계원예술대 교수)는 "작가는 추상미술이자 퍼포먼스이기도 한 작품세계를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 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파괴적 미학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02)735-8449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